

##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말하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11월 17일(금)

## 1,100여명의 '95 충현 찬양의 밤

전 찬양대와 연주대 참가, 찬양하며 일치와 화합을

교회는 전 교회가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묶어 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며, 서로서로 하나가 되어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며 주님께 찬양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또한 각 찬양대는 이를 통해 더욱 발전하고 향상되는 기회로 '95 충현 찬양의 밤을 개최한다.

찬양위원회(위원장 김은호 장로) 주관으로 열리는 '95 충현 찬양의 밤은 7개 전 찬양대와 핸드벨과이어, 크로마하프, 만돌린연주대, 오케스트라 및 남성중창단 등 교회내 찬양단체 단체가 전체 참여하는 명실공히 충현 찬양의 밤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각 찬양대는 이미 찬양곡 선정을 마치고 지난 여름부터 연습에 들어갔다. 이번

행사는 음악회 형식을 빌어 전문 아나운서인 박성명, 유인순 집사가 순서를 진행하여 규모있고 질서있는 진행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주자와 청중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며 마지막 곡은 전 찬양대원과 출연자가 함께 연합으로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찬양하게 된다.

이번에 참여하게 될 찬양대원은 약 1,100여명 정도. 온 성도가 참여해 진정한 '충현 찬양'의 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출연 찬양대 및 연주대의 프로파일은 다음표와 같다.

| 순서 | 찬양대                 | 인원     | 지휘자  | 반주자 | 찬양곡                                                                                              |
|----|---------------------|--------|------|-----|--------------------------------------------------------------------------------------------------|
| 전주 | 오르간 독주              | 1명     |      | 백금옥 | Variations on 'O come, all ye faithful' (G. Dethl)                                               |
| 1  | 핸드벨과이어              | 65명    | 송재월  |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C. Dobrinski)<br>A joyous song(J. W. Kerr)                                       |
| 2  | 시온찬양대<br>(영아예배부)    | 45명    | 이수철  | 조희영 | O praise the Lord All ye nations(G. Telemann)<br>바이올린 / 이수철 이시원<br>Praise the Lord(A. Randegger) |
| 3  | 호산나찬양대<br>(수요, 1부)  | 120명   | 송숙자  | 채은실 | 내 맘에 주의 성령임하시(W.H. Neildlinger)<br>새 노래로 주찬양하라(E. Butler)                                        |
| 4  | 아멘찬양대<br>(주일, 4부)   | 140명   | 최광덕  | 송영미 | 아름다운 온 땅과(J. Rutter)<br>그 이름 예수(O. Killings)                                                     |
| 5  | 실로암찬양대<br>(수요, 2부)  | 65명    | 김철륜  | 임효선 | 시편 150편(A. Randegger)<br>자비로운 주 하나님(여대영 편곡)                                                      |
| 6  | 남성중창단               | 8명     |      | 김윤경 | 내 주를 가까이(L. Mason)<br>Hallelujah to the saints(G. F. Handel)                                     |
| 7  | 크로마하프만돌린            | 50명    | 송문영  |     | 내 주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A. J. Gordon)                                                                    |
| 8  | 가브리엘찬양대<br>(주일, 1부) | 130명   | 이영조  | 백금옥 | 주는 산골짜기의 백합(이영조 편곡)<br>시편 84편(J. Brahms)                                                         |
| 9  | 오케스트라(연합)           | 70명    | 남궁 조 |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E. A. Edgren)<br>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J. Haydn)                                         |
| 10 | 임마누엘찬양대<br>(주일, 2부) | 180명   | 장기범  | 김윤경 | Credo(C. F. Gounod)                                                                              |
| 11 | 할렐루야찬양대<br>(주일, 3부) | 180명   | 김영준  | 김옥련 | 주여 우리 기도 들으소서(K. Medema)<br>오 예수 그리스도(V. Berchem)                                                |
| 12 | 연합찬양대               | 1,054명 | 최광덕  | 송영미 | 할렐루야(G. F. Handel)                                                                               |

## '96년도 서리집사, 권찰 후보교육

11월 15일(수)과 11월 19일(주일)에 3차례 중 한번만

교육 및 면접 받지 않으면 임명되지 않음

교회는 '96년도 신임 서리집사 및 권찰 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면접을 오는 11월 15일(수)과 11월 19일(주일)에 3차례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 및 면접은 1차로 11월 15일(수), 오후 12시 30분부터, 2차는 11월 15일(수) 오후 8시 10분부터, 이 두번 중 한번만 받으면 되지만 가능하면 아래의 내용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자는,

2차 교육에 불참한 사람에 한해 3차로 11월 19일(주일), 오후 2시 20분부터 시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면접은 서리집사 후보자만 받는다. 이번에 후보교육을 받는 사람은 서리집사 610여명, 권찰 370여명 등으로 1,000여명에 달한다.

교육 및 면접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서리집사나 권찰로 임명을 받지 못한다.

교육 및 면접 일정표는 아래와 같다.

## - 아 래 -

1차 교육 및 면접: 11월 15일(수) 낮 ← 여자 서리집사, 권찰 후보자

| 시간          | 과목             | 장소    | 구분     | 강사     |
|-------------|----------------|-------|--------|--------|
| 12:30~13:30 | 제1강 교회의 봉사와 원리 | 교307호 | 서리집사   | 김찬곤 목사 |
|             | 제1강 권찰의 임무     | 교314호 | 권찰     | 이홍성 목사 |
| 13:30~14:40 | 제2강 청지기론       | 교307호 | 서리, 권찰 | 성봉환 목사 |
| 14:50~      | 면접             | 교307호 | 서리집사   | *대개장소  |

2차 교육 및 면접: 11월 15일(수) 밤 ← 남자 서리집사 후보자

| 시간          | 과목             | 장소    | 구분     | 강사     |
|-------------|----------------|-------|--------|--------|
| 20:10~21:10 | 제1강 교회의 봉사와 원리 | 교307호 | 서리집사   | 김찬곤 목사 |
|             | 제1강 권찰의 임무     | 교314호 | 권찰     | 이홍성 목사 |
| 21:10~22:10 | 제2강 청지기론       | 교307호 | 서리, 권찰 | 성봉환 목사 |
| 22:15~      | 면접             | 교307호 | 서리집사   | *대개장소  |

3차 교육 및 면접: 11월 19일(주일) 낮 ← 부득이한 사정으로 1, 2차 불참을 인정 받은 자

| 시간          | 과목             | 장소    | 구분     | 강사     |
|-------------|----------------|-------|--------|--------|
| 14:20~15:00 | 제1강 교회의 봉사와 원리 | 교307호 | 서리, 권찰 | 장우천 목사 |
| 15:05~15:45 | 제2강 청지기론       | 교307호 | 서리, 권찰 | 성봉환 목사 |
| 15:50~16:30 | 면접             | 교307호 | 서리집사   | *대개장소  |

## 김창인 원로목사 헌혈금장 수여 받다



1995년 11월 6일(월) 충현교회에서 대한적십자사 강영훈 총재는 교회헌혈에 적극 참여해온 충현교회와 사랑실천운동에 공헌하신 김창인 목사의 노고를 치하하며 그에게 1995년도 적십자사 헌혈금장을 수여하였다.

매해 250만명 이상의 헌혈을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의 수용에 베풀어 줄만도 못 미치는 헌혈 수량 때문에 해외에서 많은 피를 수입하는 등의 국가적인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교회가 앞장선 것은 1992년 3월 사랑실천운동본부(본부장 지원상 목사)가 개설되면서 부터이다. 사랑실천운동본부는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산하기관으로 그 첫 번째의 사업으로 헌혈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 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교회는 운동에 참여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하고 헌혈에 앞장 서게 되었다. 특히 원로목사이신 김창인 목사는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고문으로서, 이 일에 처음부터 적극 참여하심으로 교회헌혈 뿐만 아니라 헌혈운동을 위한 회보 제작 등 많은 일에 동참하였다.

우리 교회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교회헌혈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3천명 이상의 교인이 헌혈에 동참하였고, 교회헌혈을 권장하는 특별 설교도 계속 집필하여 잡지에 기고해 왔다. 이같은 교회헌혈은 92년도에 500여 교회, 93년에 700여 교회, 94년도에 약 1천 교회가 헌혈에 참가했으며, 금년에는 1,200교회를 목표로 하게 되었다. 이같은 교회헌혈이 책극성을 띠면서부터 우리나라 전체 헌혈수가 매해 15만 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대로 진행된다면 2천만 명에 가까운 우리 국민의 헌혈로 필요한 수혈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사면 강해 ●

# 환난중에 있는 성도의 아침 노래

## (시 3:1-8)

**시**편 3편을 짓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 임금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비뚤어진 마음을 품고 다윗 임금의 머리 좋은 모사인 아히도벨과 짜고 사년 동안을 준비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에게는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특별한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고는 각 지방에 훈련시켜둔 자기의 비밀군대를 헤브론으로 다 집합을 시키고 아히도벨과 함께 '압살롬 대왕 만세'를 부르고 스스로 왕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쳐올라옵니다. 다윗 임금과 신하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다가 이 급보를 들으니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봤자 죄없는 예루살렘 시민만 다 죽일 것입니다. 이리하여 다윗 임금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궁궐을 내주고 늙은 신하 몇 사람을 데리고 저녁에 도망을 떠났습니다.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사랑하는 아들을 피해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본문 시편 3편은 이때에 어려운 밤을 하룻밤 지내고 깨어난 이튿날 아침에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지은 것입니다.

### 1. 다윗의 호소가 어떠합니까

첫째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3:1)라는 것이 첫번 부르짖음입니다. 의인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악마가 들끓는 세상이 돼서 악마는 의인일수록 더 미워합니다. 다윗은 죄인이 되어서 원수가 많은게 아니라 의인이 됐기 때문에 원수가 어려서부터 많았습니다. 사울왕이 까닭없는 원수가 되었던 때가 얼마나 긴 세월이었습니까?

둘째로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3:1)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적들이 일어나 다윗을 쳤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말로 하는 원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처럼 직접 행동하는 원수가 많았습니다. 평생 다윗왕과 전쟁을 의논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정복하던 그 전략가 아히도벨, 다윗의 심장과 같은 아히도벨이 이제는 가장 무서운 원수의 과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을 받던 셋째 아들 늑까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 세사람들이 왜 다윗왕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특별 때문에 다윗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욕심에 생기면 남을 죽입니다. 남보다 앞서는 것은 좋으나 교만과 욕심이 생기면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많은 사람이 나를 개리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니이다" (3:2)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론도 다윗을 공격합니다. 원수들이 마음으로 미워하고 일어나 행동으로 쫓아내려 하니 백성의 여론도 제주를 괴롭힙니다. 세상은 의로운 편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고 세력 좋은 편에 가서, 약한 자와 앞잡이가 되어서라도 차가에게 무엇인가 이가 나는 것을 원합니다.

### 2. 다윗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방패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3:3)라고 했습니다. 약한 자가 활을 천 곳에서 쏘아도 하나님은 나를 두루 지키시는 방패이시니 활촉이 내 심장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방패'라는 말은 절대적인 보호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사람은 손발자가 절대로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시요" (3:3)라고 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성공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시골에서 양을 치던 일개 목동 다윗이 임금이 된 것은 자기가 잘 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던 죄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도 요셉이 잘 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성공케 하시는 자를 꺾어서 밭아 망신시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실패케 하는 분이 아니고 성공케 하는 분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권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3:3)라고 했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우고 열흘이나 비가 내린다고 태양이 없어진 것 아닙니다. 열 하루 만에 바람이 부니 구름은 없어지고 태양은 그대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자입니다. 현재 다윗왕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어젯밤에 궁궐을 버리고 도망쳐 와서 댕에서 야숙을 하는 사람이니 머리를 든 사람이 아니라 도망자로서 머리를 숙인 처지입니다. 그러나 며칠만 지나면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머리를 들어 억만 사람 앞에 권위를 주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다윗은 도망갔다가 며칠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온 세계를 호령하는 임금이 되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소에서 응답하시는도다" (3:4)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과요 영광이요 머리를 들게 하시는 자시므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속으로 기도하는 것에 아니라 탄원에 들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믿음이 가득한 기도입니다. 의심이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실현은 아직 안되었고 성령은 안되었지만 응답은 받았습시다.

### 3. 참 성도의 평안은 어떠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어이다" (3:5)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열심으로 일하고 피곤한 사람에게 깊은 잠을 잡니다. 몸에 건강한 사람에게 잠을 잘 자게 합니다. 사람은 잠을

마음은 평안하지만 구원이 이루어진 자라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분도,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분도, 인간적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잘 못잡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잠을 잘 자지 근심이 많은 사람은 잠을 잘 못잡니다. 분한 마음이 없는 편안하게 잠을 숙복하는 사람이 잠을 잘 자지 분노한 사람은 잠을 못잡니다. 그런데 이 다윗 임금이, 아들이 죽일려고 해서 도망가는 첫날 밤에, 군대 몇명만 데리고 도망가는 위태로운 첫날 밤에, 아히도벨이 일한 이 천명 군인을 거느리고 방금 닥쳐 올릴지도 모르는 그 날 밤에 앉아서 즐겼다고 해도 모르겠는데, 무서워서 떨었다고 해도 모르겠는데, 옷 벗고 침대에 누워 쉼쉴 코 골고 주무셨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앉아서 졸지도 않고 눈을 팔뚱뚱 뜨고 운것도 아니고 편안히 누워 잤습니다. 이 말은 분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정신이 맑아졌다,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말입니다. 한 잠 폭 자고 나니까 이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생겼습니다. 장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물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담대한 마음으로 잤습니다. '나 악한 죄 과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 4.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셀라)" (3:7-8)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평안하지만 구원이 이루어진 자라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분도,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분도, 인간적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섭리주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주이시며 어떠한 죄인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셔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 주시게까지 하신, 아니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게까지 하신, 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일시적으로 죄

로움을 당했거나 몸에 병들었다고 해서, 사업에 실패했거나 학교 시험에 낙제했다고 해서 주지않으면 안됩니다.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골고루 주옵소서' 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몇일 있다가는 궁궐로 돌아 갈게야. 도탄 중에 있는 내 백성들이 전쟁 안만나고 편안해질게야'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원수를 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자, '악인의 이를 꺾어주옵소서' 그랬습니까? '꺾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악인의 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브라질의 방울뱀, 타일랜드의 코브라, 얼마나 무서운 독사입니까? 소가 보통 뱀을 잡아 먹습니다. 그런데 방울뱀이 방울을 한번 드르르르 울리면 소가 가다가 막 섭니다. 꿈작을 못합니다. 소도 사자도 방울뱀한테 물리우면 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방울뱀이라도, 그렇게 무서운 코브라 뱀이라도 이빨 들면 뺨아 놓으면 저렇게처럼 맥을 못잡니다. 그래서 다윗왕은 '하나님이여 벌써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김일성의 이빨 들만 뺨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김일성이 호령하던 모란봉에 가서 꼭 설교를 하게 해 달라고. 우리는 도망은 갈지언정 '독사의 이빨을 꺾으셨나이다' 과거완료사를 쓸 수 있는 다윗같이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세요' 축복하는 다윗같이 이만한 믿음으로, 이만한 소망으로, 이만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 주신 일에 진전합니다. 민족부흥운동, 천국일꾼 양성하는 운동, 세계 선교하는 운동, 새 생령 건축하는 운동, 온 천하가 축복하면 더 좋고, 무슨 말로 할어도 겁내지 말고 진행합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총 같은 손에 악독한 원수의 뺨을 제나라 때를 때를 나자 덮어지는데 이빨 들을 뺨아 베리시니 이제 는 복 뺨에 밧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구원은 내것이요 하나님의 다름 사면 하나님 앞에 뺨을 얻어 뺨습니다. 하나님 앞에 뺨 얻어맞는 사람 꿈에도 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 받은 제복 내려온 다 되고, 한국의 모든 백성에 되기를 소원합니다.

##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우리의 삶의 평정은  
주위의 환경에 처한 것이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여호와를 인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승림

(목사, 영어예배부 지도)

지난 수개월간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끔하는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있다. 600 여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의 붕괴 사건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리에 관한 내용들은 자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에게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사건들에 대한 언급함을 듣게 될 때마다 부끄럽게 여겨지는 창피한 보도들이 아닐 수 없다. 뉴스를 통하여 본 어린 아이를 등에 업은 한 여인이 악을 쓰며 노태우씨의 자택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이며, 분노를 금치 못하여 술을 퍼마신 까닭에 음주운행으로 적발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은 남녀노소 모두 크게 분개하여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간에 있었던 교회내부의 일을 통해서도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실로 착잡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난주간 발생한 왕십리 시장의 화재를 통하여 우리교회에서도 7가정이 큰피해를 보았다는 소식, 갖가지 심각한 중병으로 고생하는 교우들의 소식 등으로 마음 한 구석은 늘 안타깝고 무겁게 느껴진다.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울까……, 얼마나 분하고 낙심될까……

얼핏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고 분노하고 불평하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분노나 불평을 위하여 전혀 힘쓸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어떠하여야 하는 것을 누누히 말씀하시고 계시다.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8) 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셨다.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독교의 여러절기들을 만나면서 큰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절기들을 지내기가 쉽다. 때가 되면 해마다 오고가는 절기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가고 오는 절기들을 의미있게 보내기도 하고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소홀히 지나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는 ‘나’, ‘우리’ 중심으로 살 때 그러한 현상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한 절기가 있음은 매우 유익한 것일 뿐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정한때에 특별한 의미를 포함한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시며 요구하고 계신다.

예로부터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관능으로 인도하여 대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여러 절기들을 제정하셨다. 레위기에서 우리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칠절절 또는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수장절), 그리고 안식일의 제정을 보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전혀 묵도하고 경행한 당사자들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들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끔 하시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



▲ 추수감사주일 찬양예배후 교회학교 학생들의 축하 공연 모습이다.

들을 기념하는 예식과 절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곧 추수감사절이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간 첫해였던 1612년의 혹한 겨울을 건지고 농사를 지은후 첫 추수를 하게된 것을 감격하여 예배한 것을 기념하여 이후 미국의 의회가 국가 공휴일로 정하여 실시하게 된 절기이며 해마다 11월의 셋째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오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택을 돌이켜 회고하며 중심으로 감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절기를 맞이하는 ‘나’ 중심적인 자세가 아니다. 비록 우리의 처한 형편과 처지가 비참할지라도, 분하고 원통할지라도, 더할 수 없이 낙심되고 안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상하고 힘주시고 도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절기로 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맞추는 것이다. 곧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절대적인 축복들을 인하여 감

사하여야겠다.

하박국 선지자의 결론과 같이 우리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하박국 3:17-18)는 결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감정적인 결론이 아니다. 우리

의 삶의 평정은 주위의 환경에 처한 것이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여호와를 인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곧 주를 믿는 우리에게 행복은 선택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여받은 자였고(엡 1:3), 그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이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바울 사도의 고백, 곧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한 고백이 또한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절대적인 축복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불평하고 재주하며 감사치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알들하게 배려하시는 따뜻한 손길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게 마련이다. 이는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교만이 그들의 목을 곧게 만듦 때문이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허전한 상태 그대로

내어버려두시고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하여,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인하여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의 푸석푸석 메마른 마음은 은혜로 촉촉히 적셔지고, 메마른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리어 이미 자상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나 자신 보다는 더 잘 아시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니 이미 주신 모든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고 감사하게끔 하시게 된다. 감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되어지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셋째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가운데서 인내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견디기 힘들어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인내하는 자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새로운 차원으로 그를 붙들고 높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걸을때에 반드시 막힌 담을 허시고, 갈길을 내보이시며, 삼킬 듯이 출렁이는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어 대로를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기까지 우리는 요동치 않고 인내로써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겠는가?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거짓없는 청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과 예배일 것이다. 또한 힘써 물질로 드리는 감사이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참회개라 할 수 없다는 말처럼 힘껏 정성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나님은 헤아리실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가족, 친지, 친구, 스승, 상사들, 또한 나를 도와 주시고 키워주신 주위의 여러 분들과 믿음의 선배와 식구들에게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부족한 자일지라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축복을 받은 것과 도움과 교훈을 얻은 것을 잊는 배은망덕한 자는 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역시 여러사람들의 도움과 지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정성이 담긴 카드나 따뜻한 감사의 말 한마디라도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하겠다.

셋째는 크신 사랑 받은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주위의 안 믿는 자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주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저들도 또한 언젠가는 우리의 감사를 드릴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우리는 답답한 일을 많이 겪고 있는 때이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과 베푸신 모든 은택을 헤아려면서 마음으로 뜨겁게 감사하고 힘써 물질로 감사하고 주위의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감사의 표현을 주를 모르는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나누게 될 때에 우리는 평안하고 순탄하던 이전의 어느 추수감사절때보다도 더욱 의미있고 감격적인 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 토 · 목 · 소 · 식

◆ 영아부는 11월 19일(주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심계명 외우기대회를 개최한다. 아빠와 엄마가 아기에게 반복하여 들려주어 외우도록 하며, 영아부 학생, 학부모 교사가 반별로 함께 참가한다.



### 자녀의 건강을 위한 어머니 교실

#### 탁아부, 오늘 특강

탁아부(부장 강모용 장로)는 11월 12일(주일), 3부 예배 후 12시 30분부터 탁아부 예배실(본당 1층 베들레헴홀)에서 '자녀의 건강을 위한 어머니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유아건강법(1세~7세)에 대한 특강을 한다.

강사는 오현구 집사(대한병원 소아과장)이며 0~7세 어린이를 자녀로 두신 부모님과 0~7세의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와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초등5부는 11월 12일 총동원 전도 주일로 정하고 직접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노방전도를 나가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

◆ 고등부에서는 중창페스티벌을 갖기로 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11월 25일(토) 오후 3시 갈릴리홀에서 예선으로 모이며, 결선은 12월 3일, 10일 1부 예배 후에 있다.

◆ 대학부는 영어예배부와 함께 이번 추수감사절(11/19)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합니다

영어예배부에서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국내에 있는 외롭고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친교, 의료 서비스, 점심 및 선물증정을 통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위에 이런 외국인들이 있으면 이번 행사에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옷가지나 기타 생활에 요긴한 물건들을 이들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니 이런 물건들이 있으신 분들은 11월 12일(주일)까지 영어예배부(복지관 지하 1층 가나홀)로 가져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1995. 11. 19. 09:00~14:00

· 장소 : 복지관 지하 1층

· 연락처 : 이승림 목사(552-8200), 이정협(570-4418)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we'll be having a Thanksgiving Celebration Party on the 19th of Nov., from 9:00 to 2 pm at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B1. Please kindly help invite internationals in Korea around you.

This will be a special event of sharing with the internationals. Please bring some gift items(clothes, books, etc.) to the church that we can share during the party.

### 장년1부 특강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신앙자세 강사에 이원설 박사

장년1부(부장 손경수 장로)는 추수감사주일(11월 19일)을 맞아 심령의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며 이원설 장로(전 한남대 총장, 역사학 박사)를 모시고 특강을 실시한다.

- 제목 :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신앙자세
- 장소 : 장년1부실 (교육관 407호)
- 일시 : 11월 19일(주일) 오후 12시 30분

옷가지나 생필품(옷, 양말(특히 남자용), 그릇) 등을 11월 12일까지 대학부로 가져와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며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 신구 위원장 회의

1996년도 새로 임명된 위원장들과 1995년도 위원장들의 신구 위원장 회의가 오는 11월 13일(월) 오후 7시 선교관 301호실에서 모인다.

#### 다음주, 추수감사주일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11월 19일(주일) I, II, III, IV부 예배시에는 1년동안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헌금을 드린다.

◆ 청년2부는 성경암송대회를 11월 19일(주일)에 열기로 하고 준비중이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2.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4.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금년에도 알찬수확을 허락하소서.
5. 제2교육관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서만수 선교사의 건강이(신장과 간)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6.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회개와 기도의 운동이 불붙게 하소서.

시편 42, 46, 51, 80, 96 편중 택일하여 암송하면 된다.

◆ 장년3부는 성경퀴즈대회를 11월 12일(주일)에 창세기 전장과 로마서 6~16장을 범위로, 장년3부 전 학생을 대상으로 펼친다.

◆ 사랑부에서는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성도로 사랑부에서 자원봉사할 사람을 찾고 있다. 매주 일 사랑부 학생들을 집에서 교회까지, 교회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 일을 하게 된다.

◆ 예신부(예비신랑신부)는 오는 11월 25일(토) 오후 5시 ~ 8시 30분, 예신부를 수료한 회원들과 재학생, 교사 등이 모두 모여 특강과 친교의 시간을 갖는 Home Coming Day로 정했다.

◆ 대학부에서는 봉천동 달동네에 야학공부방을 마련하여 결손가정 자녀들을 가르쳐 왔다. 그동안에는 관악구청에서 내어준 가건물에서 실시해 왔는데 교회에서는 100만 원을 지원하여 따로 공부방을 마련토록 했다.

### 가을은 넉넉한 주님의 품

김운섭/집사, 장년1부

여름을 접어 머무는 가을  
초록은 옷 갈아 단장하고  
파란하늘 높게 드리운 그 곳  
내 고향 하늘은 넉넉하여라

일렁이는 바람 오색으로 다가와서  
어느새 마음에 심은 가을  
금빛자락 들녘 살 피우는 부요  
내 고향 하늘은 넉넉하여라

가을은 넉넉한 주님의 품  
텅 빈 허전함 생기돌고  
만월에 마음은 사랑듬뿍  
내 고향 하늘은 넉넉하여라

하늘에서 쏟아놓은 풍요  
주안에는 항시 부족함이 없여라  
이웃과 이웃 정이 오가며  
내 고향 하늘은 넉넉하여라

넉넉한 눈빛으로 주님 바라보며  
아니먹어도 배부른 계절  
찬양과 기도 높아지고 신앙은 깊어만가는  
내 고향 하늘은 넉넉하여라

### 화재당한 교우들과 사랑을 나눕시다 생활용품을 보내줍시다!

지난 11월 4일, 서울 왕십리 시장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화재로 우리 교회의 일곱 가정이 피해를 당했다. 화재 중에 가재도구를 다 불살라 버린 교우들을 위해 교회에서는 생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다. 이들의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며 동성한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장소 : 사무국(교육관 1층)